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18:17]

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의 거짓을 판결한다 25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비밀을 푸는 “명철”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이 허망한 사람을 아사나니 악한 일은 상관이 없으니는 듯하다 보시니라 [욘 11:7-11]

“허망한 사람”은 일생 교화를 다니며 허로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았다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다 [골 3:1]. 더 넓게는 귀신이 주인이 된 사람으로 한 몫의 삶을 일생 헛되게 살다가 육체가 죽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소견대로 곧 원욕대로 살다가 죽어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사는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해주는 곳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한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절대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온 세상 어느 종교 경전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시는 참 신이 어디 있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런데 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과 일반이고, 무신론자들과 일반인[전 2:16]일까? 욥기 11장의 말씀에 같은 종교인인 소발이 고난받는 “욥”에게 “나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며 허망한 사람 취급을 한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표상이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간의 논쟁은 욥기 37장까지 이어진다. 문자 그대로 보면 소발의 책망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욥 1:1] 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욥이 깨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 곧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것 [마 4:1-11, 막 1:13, 눅 4:1-13]을 예언하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건을 만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6:39]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막 15:34]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결국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논쟁을 끝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자, 그때 욥이 진실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42:3]라고 회개하며,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5]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지도,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자가 마르던 꺾이나무나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자오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상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사 27:11]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욥도 허망한 사람으로 끝날 뻔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 주셨지만,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모르고 2천여 년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에 “오직 예수” 인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친 것이 지옥불의 소리가 되어 일생 교화를 다니며 전리 할 모든 재물에서 사망인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 이는 가만히 사실을 지금 전세에게 살고 있는 77억의 사람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누가 알았는가? 아무도,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은혜로교회 성도들은 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거나 찾고 신앙하는 목적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창세 이래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염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종교는 전부 근본부터 사람의 이론에 기초하여 사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허망하게 이어져 왔고, 성경을 사용하여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착각했을 뿐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지만 허망하게 살고 있다. 이는 창세 이래 사람 차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2008년 6월 16일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해 오신 목적은 “이 일이 질려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 102:18]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천국은 비밀”로 이어져 왔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로 알게 하신 것이 세상에 알리시는 시작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하신 것 [골 3:22-23].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각이 없었음을 판결하신 것이다 [사 27:11]. 지각이 없이 한 몫의 삶을 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먹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속에 감추어둔 천국의 비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러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영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뵈오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 21:1-5]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이 생기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비밀”을 밝혔다. “나귀”는 말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짐을 나르거나 농사를 짓는 등 노동 수단이나 지체 높은 자들의 교통 수단으로 재산 가치가 있었고, 이방 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는 말굽은 갈라자나 새끼짐을 못하는 짐승이어서 “부정한 짐승”이다.

“나귀”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 1:14]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귀는 가족으로 풀을 먹는다. 또한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밟고 잡으며” [욥 24:3]라는 말씀에 풀을 먹는 나귀의 주인은 고아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편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자객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아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욥 39:5-8]고 하신 말씀에서 “들나귀”는 “지각이 없는 허망한 자”를 뜻하신다. 여기까지 “들나귀”에 대하여 종합하면 나귀의 주인은 “고아”이고, 먹이는 “풀”이며, 들나귀의 집은 “편 땅”, 즉 “소금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으로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자다. 이런 고아가 나귀의 주인이다. 이 나귀의 먹이는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이 원욕대로, 곧 죄를 짓고 일생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은 “풀”에 비유하신 것이다 [사 40:6-7]. 이런 인생인 사람들은 나귀의 먹이가 된다. 나귀도, 풀도 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들나귀의 거처는 짙 물음 내는 곳, 소금 땅으로 아브라함 3장에 성경을 가지고 선성 노릇하며 허로 성경과 다른 거짓말 곧 지옥불로 보내는 설교를 하는 자가 서 있는 “교회”를 지칭하신 것이다 [막 3:6-12].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단어, 곧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일생 교화를 다니며 “들나귀”에 해당한다.

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가라 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생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이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편 풀이 단 풀을 내지 못하니라 [야 3:6-12]

허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설교, 말에 실수를 하는 선생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 곧 세속적인 사단의 소리로 하는 설교가 교인들을 죽이는 “독”이요, “저주”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가르침은 “편 풀”이며, “쓴 풀”이라는 뜻이다. 이런 선생의 설교는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소리이며,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소금 땅”인 “편 땅”이라고 한 것이다. 곧 자유의 사자인 용, 사단, 마귀, 가르치는 귀신, 옛 뱀, 독사의 소리가 있는 곳이면 “들나귀가 거처하는 땅”이라는 것이다. 들나귀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는 고아다. 지옥불의 소리를 하는 자는 사실 고아 정도가 아니라, 대적자요 원수다. 불의한 재판관이고 불법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눅 14:33-35]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 5:13]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소금”에 비유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눅 14:33]. 곧 자기의 원욕, 정욕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안 되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눅 14:34-3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러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마 21:2]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 감추어두신 천국의 비밀을 모셨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것을 이미 욥기서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욥 39:5]고 하신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중기이다. 그러나 욥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3421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셨고 각자 사람 소견대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만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성경적인 방언만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교인들이다. 자신들의 영혼과는 관계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 된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말하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고전 14장]. 또한 이렇게 성경적인 방언만 말하는 것은 생명의 것이 내는 소리이며,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가 될 뿐이다. 이런 설교를 일생 하고, 일생 들어도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 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으며, 더 치명적인 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열매는 단 하나도 맺을 수 없고, 설교하는 자신도, 듣는 교인들도 안 믿는 자들이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누가 알았으며, 누가 믿었는가? 14년째 증거를 해도 안 믿고 대적하고 “이단”이라 정죄하며 욕에 가득까지 펌박하고 있다. 그래서 나귀에게 재갈을 막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나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제는 허망한 소리를 그치고 온 천하는 잠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유인 “모든 것, 우주 만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불가불 왕 노릇하게 두신 것이다 [고전 15:24-28]. 그래서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욥 39:5]라고 욥을 책망하신 것이다. “들나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 분별력이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을 비유하신 것이다. 2021년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를 미혹하는 용인목사 아래 말과 나귀, 당나귀에 해당하는 비류와 잡배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이 다 드러나도 아무도 그 교회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교회, 우상이 강단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신 32:17].

내가 들로 그 집을, 편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자객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아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욥 39:6-12]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 것도 제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잠 15:2]라고 구체적으로 이미 예언해 주셨으며, 이는 진실로 사실이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진실로 믿어 계명을 지켜 살행한 자들을 “타작마당” [욥 39:12]인 은혜로교회로 영원한 복음인 “새 언약” [히 8장]의 말씀으로 모았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매어 있던 나귀를 풀어 타작마당에 오게 하신 것이었다. 이런 자들 중에 들나귀, 들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어도 절대

쟁기를 잡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영원히 사는 곳인 편 땅으로 돌아가 결국 곧 지옥불에 갈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들나귀 같은 자들, 들소들을 사용해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여 곡식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모은 “곡식들”이 낙토에 있는 성도들, 전 은혜로교회 성도들이다. 그러나 들나귀, 들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까지 갔어도 결국 뿔과 새빨간 거짓말로 모해하고 세상법에 고소하였으며, 하나님의 정한 타작마당을 “폭행, 특수폭행”이라고 더러운 죄를 씌워 나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펌박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통해 알곡으로 판결이 난 은혜로교회 성도들을 두고 “나의 타작한 곡식이며” [사 21:10]라고 하셨다.

나귀의 맨 것을 푸는 “명철”

지금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욥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전 성경 문자적인 기록은 다 사람의 증거에 해당하여, 도리어 이자를 더 아등게 하는 말이 된다. 그중가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찌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사 61:1]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만 보고 나귀를 타신 것이다 [마 21:5]. 예수님은 사 61:1의 말씀 속에 감추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모셨고, 결국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42:3]라고 고백한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리의 해석”을 할 수 없음을 감추어두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며,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다.

2천여 년 동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는 기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이나 나귀, 노새, 당나귀에 해당하는 비류, 잡류, 가르치는 귀신들이 예수 이름 사용하여 왕 노릇할 것까지 다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2021년 지금 이때까지 허로 “오직 예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말에 모두 속은 것이다. 이것은 아무런 이유로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아등게 하는 자들일 뿐임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허던 것은 다 폐하신다 [고전 13:10]고 하셨고, 포도나무로는 제조하기에 곧 다시 창조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이다 [잠 15장].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각, 지식이 생기게 하는 “명철”을 찾아야 한다.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명철을 두고 “높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 12:12]고 하신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장수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자”를 지칭하시는 것이다. 또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욥 12:13]라고 하셨듯이 “명철한 자”도, 명철한 자의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또한 잠언서에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행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잠 4:1-2]고 하셨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잠 5:1]라고 하셨으며, “아들들이 이제 내게 들라 내 도를 지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 8:32]고 하신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가르치심, 내 말, 선행 도리, 내 명철, 내 입의 말, 내 지혜, 선행 도리”를 아들들에게 전하는 “명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하신 “명철”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진솔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아들들에게 말씀하실까? 아들들은 누구일까?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골 1:14, 19].

“명철”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전 8:1]이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고전 2:15]고 하신 “사람”이다. 이를 두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는 누구로 더불어 의화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사 40:13-14]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와 신이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며, 진리의 성령인 나에게 “통달의도”를 보여준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악한하시고, 교훈하셨으며, 공평의 도로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달의 도로 보이실 것을 2721년 전에 예언해 두신 이래로 14년째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 [욥 12:12-13]고 하신 것이다. 또한 반드시 “내가 네게 정강이여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평이여 여인으로 네게 정강이여 진실함으로 네게 정강이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 2:19-20]는 예언이 성상이 된 “여자”라 “높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신 것이다. 아무 높은 자, 아무나 장수한다고 명철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2천 년 전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 속에 감추어두신 비밀을 밝히는 자가 “명철이 있는 자”이며, “해를 입은 여자”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이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고 있으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 15:26] 하신 말씀대로 14년째 사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있다.

진리는 기록된 명제인 말씀이 사실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였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를 증거하므로 “나”는 “진리의 성령”이며, “믿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명철”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행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 영벌”에 떨어지기에 육체가 살아 있을 때 공개 사교하고 회개해야 한다. 진리의 성령을 육에 가두는 패역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코로니 19는 병사의 일각이다.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패역이 이 땅에 다 내린다.